

나주 능주초, 영어 골든벨 대회 '성료'

영어 파닉스 및 단어 골든벨 형식 기획해 나주 능주초등학교총동문회 시상품 지원 영어 실력 향상 위한 교육활동 지원 나서



나주 능주초등학교는 지난 8일 교내 영어 골든벨 대회인 「영어아 놀자~ 단어 골든벨」을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청각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영어 회화의 기본이 되는 파닉스 및 단어를 골든벨 형식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학년별 영어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로 문제를 구성하였고, 미리 안내

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골든벨 진행 방식은 OX, 사지선다형, 단답형 등으로 이루어진 문제를 본선, 패자부활전을 거치면서 풀었다. 이를 통해 각 학년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을 선정했다. 능주초등학교총동문회(회장 이영수, 부회장 주종광, 총무이사 김현호)에서 방문하여 시상품을 지원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북돋았다.

학생들은 골든벨 준비를 위해 틈새 시간을 이용해 영어 단어 외우기에 몰입하였다. 대회 당일 긴장감을 안고 자리에 앉으면서 떨리는 손으로 보드판과 펜을 쥐었다. 문제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은 패자부활전을 통해 부활하여 다시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열심히 문제를 풀었다. 패자부활전은 선생님들의 간단한 게임을 통해 진행되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번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참석한 능주초등학교총동문회 이영수 회장은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골든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대회에 수상한 5학년 학생은 "올해도 작년처럼 영어 골든벨과 더불어 다양한 골든벨 행사가 있어서 좋았고, 문제를 푸는 내내 떨렸지만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답을 적었고, 앞으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재숙 능주초 교장은 "인공지능 AI 시대에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했지만, 우리 학생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영어 골든벨을 준비하며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총동문회의 지원으로 영어 골든벨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운영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강진 병영상고, '바리스타 체험' 성료



강진 병영상고등학교 개설 카페에서 지난 12월 8일 실시된 '지역사회 학부모와 함께하는 바리스타 체험'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역사회 학부모와 함께하는 바리스타 체험'은 바리스타 창업동아리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활동으로 바리스타 체험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이다.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교육의 3주체가 모인 자리에서 단연 화두는 '글로벌 병영상고-희망의 실크로드'였다.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글로벌 인재를 키워나가기 위해 교육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병영 상인'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한 명 한 명 꿈을 찾아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 활동이 필요한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학교와 마을이 공생하는 교육'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향한 길을 닦아나가는 다짐을 함께 나누었다.

작은 시골 동네인 '강진군 병영면'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품성과 역량을 갖춘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 함께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박병용 청년회장은 "병영 상단을 그린 벽화에서부터 열심히 커피를 내리던 학생들의 모습까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교육 활동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말과 함께 병영 상인의 후예를 기르는 교육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다.

전성이 병영상고 교장은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아이를 잘 길러내기 위해 힘쓰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했으며,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남교육청, 이중언어 페스티벌 운영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9일, 10일 이틀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전남 작은학교 박람회와 연계해 2023. 이중언어 페스티벌을 열었다.

도교육청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조화로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문화학생이 가진 강점을 살리고, 모든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중언어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23 이중언어 페스티벌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다문화교육 배움채움 프로그램, 이중언어 동아리 등 그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이중언어교육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이중언어교육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험 행사로는 '이중언어로 다(多)같이 놀자! - 이중언어놀이터'라는 주제로 숫자, 색깔과 관련된 언어를 배우고 중국,일본,베트남,필리핀,몽골 5개 나라의 전통놀이와 접목해 이중언어를 말하는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전시 행사에는 '지구촌 가족에게 전하는 이중언어 인사말'이라는 주제로 이중언어동아리 학생들이 지구촌 가족에서 보내는 다양한 언어의 응원의 말이 전시됐다. 홍보 분야에서는 '어서와~ 다문화국제교육팀의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2023년 교육자치과 다문화국제교육팀의 정책 및 교육활동이 소개됐다.

특히, '다름을 잇는 다리: 이중언어'라는 주제로 펼쳐진 공연에는 12개 팀이 참가해 한국



어와 모국어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부모, 또래친구와 함께 무대에 올라 시낭송, 노래, 말하기, 뮤지컬 등 다양한 형태로 이중언어를 표현해 박수를 받았다.

공연 부문에 어머니와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가정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로 나누었던 대화를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게 되어 너무 떨렸다."면서 "하지만 발표를 마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 일본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전남의 모든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중언어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내년에는 이중언어강사 양성, 이중언어동아리, 이중언어교육 정책학교 운영 등 이중언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권기자

영광초, 이음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 연주회 개최

영광초등학교 이음 오케스트라가 지난 8일 오후 5시,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이번 연주회는 이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방과 후에 연습하며 익힌 연주곡을 지역민, 교직원, 학부모, 재학생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정기 연주회다.

이번 정기 연주회에는 많은 교육공동체가 가족이 참석하여 꿈과 희망을 연주하는 영광초 이음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주었다.

특히, 한빛원자력본부는 2천만 원을 전폭 지원해주어 본교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을 기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영광초 이음 오케스트라는 2021년에 전남문화예술협회 지원으로 창단되었고, 올해로 세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연주회는 슈베르트의 '송어', 베히스의 '나의 현악 오케스트라 모음곡' 등의 잘 알려진 곡

꿈과 사랑 그리고 열정을 엮어 모두가 하나 되는 예술 한마당



과 스피타의 '러시아의 겨울', 라브리의 '하늘 모음곡' 등 5곡의 국내 초연곡으로 구성되어 의미를 더하였다.

이음 오케스트라 악장으로서 본공연에 참여한 권OO학생은 "단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뜻깊었고, 공연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연주 소감을 전하였다. 오경희 학교장은 "끝까지 열심히 연습

해 준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으름꿈을 펼치는 데 학교가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이어주는 든든한 가교역할을 하는 '이음' 오케스트라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영광=서희권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